



미국경제, 낙관론 확산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실업률은 1월과 같은 8.3%에 머물렀으나,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되고 가계의 순자산(net worth)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소비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남.
 - 3월 12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1월과 같은 8.3%에 머물렀으나 신규 일자리 수가 22만 7,000개로 3개월 연속 20만 개를 상회했으며, 임시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규직 수요 증가 가능성도 높아짐.
 - 연준에 따르면 2011년 4/4분기 가계의 순자산은 주식시장 회복으로 1조 2,000억 달러 증가한 58조 5,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가계부채는 2008년 2/4분기 이후 처음으로 연율 0.25%의 증가세를 기록함.
 - IHS Global의 이코노미스트 Paul Edelstein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재정상황과 고용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함.

- 블룸버그의 소비자 안심지수(consumer comfort index)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매판매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.
 - 블룸버그가 발표한 3월 첫째 주 소비자 안심지수는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Joe Brusuelas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재정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함.
 - 상무부에 따르면 2월 소매판매가 1.1% 증가하면서 5개월 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, 이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가 1.6% 증가하고 휘발유 판매도 3.3% 증가했기 때문임.
 - 한편, 전미소매연합회(NRF)의 Matthew R. Shay는 2월 평균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봄철 의류 구입이 증가한 것도 소매판매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함.

(Chicago tribune, 3/13 등)